One pick 업 앤 다운

성매매 알선 등 혐의를 받은 빅뱅의 전 멤버 승리가 지난해 1월1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스포츠동아DB

빅뱅 15주년 기념 SNS 자축 막내 승리의 법정구속 희비

10년 넘게 동고동락해온 그룹 빅뱅 멤버들의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린 일주일이다.

탑, 태양, 태성이 19일 데뷔 15주년을 맞아 SNS를 통해 자축했다. 태양은 "시간이 날아가는 것 같다"며 "벌써 데뷔 15주년이라니 뜨거웠던 올 여름 맑을 하늘처럼 우리의 모든 날들이 더욱 아름답기를"이라고 글을 남겼다. 대성도 "나의 영원한 VIP(팬클럽 이름) 감사하다. 곧 보자. 제발"이라 썼고, 탑은 숫자 '15' 모양의 풍선 사진으로 팀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빅뱅은 2006년 8월19일 데뷔해 '거짓말', '마지막 인사', '하루하루', '뱅뱅뱅', '판타스틱 베이비', '에라 모르겠다' 등 히트곡을 남기며 글로벌 스타로 자리매김했다. 지드래곤, 탑, 태양, 대성, 승리 등 멤버들은 솔로가수로도 모두 승승장구했다.

하지만 승리가 2018년 이른바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버닝썬과 관련해 갖은 사건과 논란 속에 성매매 알선 등 혐의가 불거지면서 이듬해 팀에서 탈퇴해 그룹은 4인조로 재편했다. 더욱이 승리는 12일 군사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그룹 활동 당시 막내로 '형'들의 귀여움을 독차지하며 '승츠비'(승리+개츠비)라는 캐릭터로 팬들의 사랑을 받았지만, 관련 사건으로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월드디즈니가 가장 먼저 선택한 한국시장, '샹치와 텐 링즈의 전설' 9월 1일 공개

'마블민국'…아시아 히어로물 통할까?

중국계 리우 샹치 역…亞 정서 담아
11월 '이터널스' 마동석 길가메시 역
"마블, 앞으로 인종적 다양성에 초점"

할리우드 첫 아시안 슈퍼 히어로 '샹치'. 9월1일 개봉하는 '샹치와 텐 링즈의 전설'의 주인공이다. 아시아적 정서까지 온전히 담아냈는지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사진제공 | 월츠디즈니컴퍼니코리아

'마블민국'.

미국 배급사 월드디즈니컴퍼니는 영화 '샹치와 텐 링즈의 전설'(샹치)을 9월1일 공개한다며 최근 한국을 이렇게 가리켰다. '샹치'는 할리우드 마블스튜디오의 새로운 슈퍼 히어로물로, 마블은 '어벤져스' 시리즈 등을 통해 쌓아온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MCU·일련의 중요 설정이 서로 연관성을 갖는 마블스튜디오 슈퍼 히어로물)'에 대한 한국 관객의 유난한 애정에 감사함을 표했다. 실제로 2008년 '아이언맨'부터 올해 '블랙 위도우'에 이르기까지 한국에서 개봉한 마블의 슈퍼 히어로물 23편은 모두 1억2000여만여 관객을 끌어 모았다. 덕분에(?) 한국 관객은 '샹치'를 북미지역은 물론 전 세계 가장 먼저 영화를 보게 됐다.

●샹치와 길가메시…아시안 슈퍼 히어로

'샹치'는 또 다른 점에서 시선을 모은다. 최초의 아시안 슈퍼 히어로를 내세웠기 때문이다.

캐나다 시트콤 '김씨네 편의점'으로 낯익은 중국계 배우 시무 리우가 아시안 슈퍼 히어로 샹치 역을 연기하며 현란한 액션을 선보인다. 일본계 데스틴 크리튼 감독 연출에 한국계 아콰피나, 중국 스타 량차오웨이(양조위)와 량쯔충(양지경)도 출연한다. 이들은 초인적 능력의 '텐 링즈'에 기대 어둠의 세상을 지배해온 아버지에게서 자라나 새로운 히어로가 되어가는 아들 샹치의 이야기를 그린다.

올해 11월에는 마동석이 길가메시 역을 맡아 안젤리나 졸리와 호흡한 '이터널스'를 개봉한다. 영화는 중국계 감독 클로이 자오 연출로 멕시코 출신 셀마 헤이엑, 아프리카계 브라이언 타이리 헨리 등 '다국적' 연기자들이 그야말로 다양한 히어로의 이야기를 펼쳐낸다. 마동석은 최근 미국 연예전문지 '엔터테인먼트 위클리' 인터뷰에서 길가메시를 "MCU의 첫 한국 슈퍼 히어로"라고 소개하며 "젊은 세대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을 봤다"고 밝혔다.

두 영화와 각 캐릭터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는 아직 베일에 가려져 있다. 하지만 케빈 파이기 마블스튜디오 대표가 최근 '샹치'는 "'아이언맨'에서 시작됐다"고 언급하는 등 관계자들이 내어 보인 힌트와 티저 영상 등은 두 영화가 MCU의 연장선에 있음을 보여준다.

●"다양성과 포용에 집중"

아이언맨, 캡틴 아메리카, 토르 등 마블의 슈퍼 히어로들은 그동안 백인 남성들이었다. 관객에게도 낯익었다. 하지만 아시안 슈퍼 히어로는 이제 거기에 '균열'을 내고 있다. '마블민국'이라는 표현처럼 마블이 아시아시장을 중시하며, 아시아권 문화를 담아내는 새로운 정서의 이야기를 펼치고 있음을 말해준다. 문화적 다양성을 향한 할리우드의 최근 수년간 흐름을 반영하는 셈이기도 하다. 미국 연예매체 데드라인은 '샹치' 제작 소식을 전하며 "마블이 앞으로 인종적 다양성과 이를 포용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일부에서는 중국시장을 겨냥한 전략이라는 시선도 나온다. 중국은 북미지역에 이어 전 세계 흥행 규모 2위를 차지할 만큼 마블 슈퍼 히어로물의 중요한 시장이다.

그럼에도 다양성을 담아내려는 노력은 폄하할 수 없다. 마블은 '블랙펜서'로 흑인, '블랙 위도우'로 여성 슈퍼 히어로를 내세워왔다. '배트맨' '슈퍼맨' 시리즈로 마블에 맞서온 DC도 동참하고 있다. DC는 이미 '원더우먼' 시리즈로 여성 히어로의 활약을 그려왔다. '배트걸' 등 또 다른 이야기도 예정하고 있다. 여기에 마블 등은 '토르' 시리즈의 발키리 캐릭터 등 성소수자 슈퍼 히어로도 소개해왔다. 향후 새로운 시리즈의 주인공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한국영화 흥행 몰이 추석 연휴까지 계속

휴먼극 '기적' 액션물 '보이스' 출사표

기적

보이스

여름시즌 관객몰이에 나선 세 편의 한국영화가 감염병의 거센 확산세 속에 선전하는 가운데 9월 추석 연휴까지 기세를 이어갈지 관심을 모은다. 두 편의 영화가 연휴 흥행을 노리는 사이 영화계는 조심스레 기대감을 드러낸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박정민·이성민·임윤아 주연작 '기적'(감독 이장훈·제작 블러썸픽쳐스)과 변요한·김무열의 '보이스'(감독 김선, 김곡·제작 수필름)가 최근 출사표를 던졌다. '기적'은 휴먼드라마로, '보이스'는 액션으로 각각 관객을 겨냥한다. 영화계와 극장가는 이미 18일 개봉한 '인질'을 비롯해 '싱크홀'과 '모가디슈'가 19일 현재 박스오피스 1~3위를 차지하며 여름시즌 극장가에 작게나마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분위기가 추석 연휴까지 이어지기를 기대하는 눈치다.

지난해에도 '반도' '강철비2:정상회담'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등 여름 기대작의 흥행으로 추석 연휴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없지 않았다. 하지만 여름시즌과 연휴 사이 간격이 길었고, 감염병 사태에 대한 관객 경계심도 한계로 작용했다. '담보'가 그나마 비교적 흥행에 성공한 것으로 꼽힌다.

이와 비교하면 올해 명절 연휴는 9월 말이나 10월 초중순에 걸쳐 있던 예년보다 다소 이른 시기인 9월18일 시작된다는 점, 감염병의 거센 확산세와 그로 인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속에서도 여름 기대작이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다만 현재 세 편의 한국영화가 연휴까지 기세를 이어가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만큼 신규 개봉작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

변수는 코로나19의 확산세이다. 19일 한 투자배급사 관계자는 "여름시즌 성적이 나쁘지 않아 신작의 추석 개봉을 추진 중이다"면서도 "코로나19 추이를 쉽게 예측할 수 없는 탓에 조심스럽다"고 밝혔다. 또 다른 투자배급사 관계자는 "감염병 확산세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적용 추이를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면서 "조만간 작품의 개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윤여수 기자